

## 한국판 영적 대처 척도 타당화 연구\*

이수아 신지은 이해지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부교수                  강사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영성을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Charzynska(2015)가 개발한 영적 대처 척도(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원척도는 총 7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 국내 성인 309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요인(긍정적 개인적 대처, 긍정적 종교적 대처,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 부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사회적 대처), 21문항 구조가 도출되었다. 이어서 대학(원)생 성인 30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앞서 도출된 요인 구조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판 SCQ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타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적 안녕감 척도, 적극적 대처 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역상관이 예측된 우울과 특성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변별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증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적 대처 척도는 기존의 영적 안녕감 척도를 통제하고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나타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영적 대처, 스트레스 대처, 척도 타당화, 영적 대처 척도

\* 본 연구는 이수아(2023)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판 영적 대처 척도 타당화 연구’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강영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57호, Tel: 062-530-2652, E-mail: lavienrose@jn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한다. 그중 어떤 사건은 일상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한다. 이때 개인은 자신이 가진 자원과 대처 방식(coping style)을 활용하여 균형점을 되찾으려 노력한다(권석만, 1997; Folkman & Lazarus, 1986). 하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예: 사랑하는 대상 상실, 자연재해, 전쟁, 고문, 범죄 피해, 만성질환, 전염병, 갑작스런 실직 등)을 경험한 개인은 이러한 대처 방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Seligman & Weiss, 1980; Sheppes & Meiran, 2007; Sheppes et al., 2009). 큰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는 사건은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심각한 정신적 상해나 생명의 위협을 일으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 가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이 기존의 자원 및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영적 대처(spiritual coping)를 활용하는 것은 사건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otton et al., 2006; Jenkins & Pargament, 1995; Krok, 2008; Miller & Thoresen, 2003; Pargament, 1999). 영적 대처란 영적 요소에 기반한 대처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 극복과 내적 성장을 위해 의미를 찾고 노력하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사람과 사물에 있어 새로움과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 또는 신적 존재에 대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harzynska, 2015; Hill et al., 2000; Krok, 2008; Miller & Thoresen, 2003; Pargament, 1999). 영적 대처의 방향성은 긍정적 영적 대처와 부정적 영적 대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대상의 상실과

같은 외상 사건은 대개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지적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거나 재평가하기 어렵다. 이때 긍정적 영적 대처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지지와 연결감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다(이서정, 이희경, 2011; 이해지, 강영신, 2017; Krok, 2008; Seligman & Weiss, 1980; Sheppes et al., 2009; Sheppes & Meiran, 2007; Sormanti & August, 1997). 반면 부정적 영적 대처 방식은 오히려 개인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부정적 영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이들은 자신의 무기력과 약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자연 또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적대적으로 여김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존재들과 신뢰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에 스트레스 요인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Charzynska, 2015). 따라서 개인의 영적 대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적 대처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영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초기 영성 연구자인 Pargament(1999)는 영성을 개인간의 차이를 초월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성스러운 것의 가치를 탐구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Elkins 등(1988)은 영성이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독특한 경험 방식이며 개인이 삶에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예: 타인, 자연, 신 등)을 이해하는 가치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Stoddard와 Burns-Haney(1990)는 영성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

적인 욕구와 경향성에 기반한 경험이라고 보았다. 이는 영성이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며, 개인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1998년 1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제 101차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건강의 정의에 ‘영적(spiritual)’인 건강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검토되면서(조선일보, 1998; WHO, 2023) 영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영적 대처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효과가 서구권에서 검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상 사건 경험 이후 영적 대처의 효과는 유의미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테면, Sormanti와 August(1997)는 자녀와 사별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사별한 자녀와 지속적으로 연결감을 유지할수록 안심과 희망을 느끼며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Gall 등(2006, 2007)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이 신(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 신을 불신하여 자신만의 노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보다 더 적은 분노와 우울을 경험했음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영적 대처는 암이나 HIV/AIDS와 같은 만성적 질환 상태에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에게도 질병의 수용, 심리적 고통의 완화, 삶의 질과 자존감 향상 그리고 생존율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tton et al, 2006; Jenkins & Pargament, 1995). 최신 연구들도 영적 대처의 긍정적 활용이 일상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개인을 압도하는 스트레스에서도 삶의 균형 회복과 심리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Daniel, 2012; Soola et al., 2022; Tao et al., 2022).

그동안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서구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에 이르면서 국내에서도 심리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예: 간호, 사회복지, 종교, 교육 등)에서 영성과 관련한 연구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영성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RISS, DBpia, KISS, SCHOLAR 등)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영성’과 ‘영적’을 주제로 입력했을 때 1970년대 이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자료는 2004년 이전 69편이었던 것이 2010년 기준 169편, 2016년 기준에는 344편으로 증가하였다(정명숙, 2018). 이 중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해당 기간 사이에 발간된 영성 관련 전체 논문 총 582편 중 114편으로 약 20%에 해당한다. 본 연구자들이 2017년부터 2023년을 기준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결과, 심리학 분야에서만 230편가량의 영성 요인과 관련한 논문이 집계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연구의 주요어로 ‘영성’, ‘영적 안녕감’, ‘영적 경험’, ‘영적 건강’, ‘영적·종교적 관심’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국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영적 대처를 비롯해 영성 요인이 개인의 신체 및 심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성, 희망, 외상 후 성장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배상정과 양난미(2014)의 연구에서는 외상을 경험한 이들이 외상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영성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영성 증진 중재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한 김주형 등(2006)의 연구는 영성 중재가 환자들의 인지적 사회적 지지

와 투병 정신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김재엽 등(2021)의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암 환자의 신체적 일상 활동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지와 강영신(2017)의 연구에서는 애도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영적 대처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성 혹은 영적 대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측정 척도의 개발일 것이다. 1960년대부터 영적 대처를 비롯한 영성 관련 개념의 척도 개발을 시작했던 서구권에 비해(Beck & McDonald, 2004; Hall & Edwards, 2002)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야 소수의 척도들이 개발 및 타당화 되기 시작했다(e.g., 이경열 외, 2003; 정성덕 외, 2001).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국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오랜 시간 많이 사용된 영성 관련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정성덕 등(2001)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이다. 이 척도는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 2요인으로 영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이는 영성 요인을 측정할 도구가 없던 국내에서 영성 요인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내 타당화 당시 연구 대상이 개신교인 단독으로 한정되어 이외의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이들의 영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 적용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Genia(2001)는 각 하위 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개념으로 개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을 제한점으로 평가하기도 했

다. SWBS의 타당화가 이루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인의 고유한 영성을 측정하기 이경열 등(2003)은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Spiritualit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서양에서 개발된 영성 척도들이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연결성 요인과 더불어 동양 문화에서 의미하는 영성의 요소인 자각, 자비심까지 포함한 총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영성이 가진 다차원적 요소를 넓게 포괄하고 한국인의 고유한 영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연구 대상의 80% 이상이 특정 지역 소재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새로운 집단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요인이 추출되는지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다.

앞선 척도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비교적 최근에 타당화 과정을 거친 영성 척도들도 존재한다. Elkins 등(1988)이 개발하고 박성현과 성승연(2013)이 타당화한 인본주의적-현상적 영성지향 척도(Humanistic- Phenomenological Spirituality Oriented Inventory), 미국의 페처 연구소(Fetzer Institute)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1999)가 개발하고 윤혜영과 김근향(2015)이 타당화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 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그리고 Genia(1997)가 개발하고 윤혜연(2017)이 타당화한 개정판 영성경험 척도(Spiritual Experience Index-Revise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측정 가능한 영성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종교성에만 국한되거나 종교성을 배제

한다. 기존 척도들의 타당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개신교나 가톨릭과 같은 특정 종교를 가진 이들이 절반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는 특정 종교에서 의미하는 영성과 종교성의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2021년 기준 종교인이 전체의 약 40%(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에 해당하는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한국갤럽, 2021)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일부 척도들은 영성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종교성을 배제하였다. 이는 과거의 척도들이 유신론적 영성 개념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나 영성 이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배제하는 셈이 되어 온전하게 영성을 이해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여전히 개인이 영성을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써 활용하는 방식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인 영적 대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까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Lazarus & Folkman, 1984) 개인이 가진 대처자원의 효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사용 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개인이 영성을 스트레스 대처자원으로 활용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는 영적 대처와 같이 자원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질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영적 대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 또는 타당화 된 적이 없기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도 영적 안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처 과정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등 영성이 정신 건

강과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진이, 2016; 서경현, 전경구, 2004; 서경현 외, 2005; 윤태상, 신희천, 2018; 이봉재, 2005; 차진경, 유채영, 2014).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영적 안녕감과 같이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만족감을 측정하는 도구와 일반적인 대처 관련 척도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영적 대처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영적 안녕감이나 영적 경험이 아닌 영적 대처 능력을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는 연구들에서도 기존의 척도들이 사용되는 실정이다(e.g., 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김재엽 외, 2021; 김진이, 2016).

한편 Charzynska(2015)가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영적 대처 척도(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는 앞서 제시한 기존 영성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Charzynska(2015)는 영성, 건강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에 비해 당시의 연구 및 측정 도구들이 개인의 영적 경향 및 경험 방식을 종교성에 국한하여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영적 대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영성과 종교성 그리고 영적 대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및 명료화하고 해당 정의에 기반한 영적 대처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많은 영성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영성의 핵심 요소로 손꼽은 초월성과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영적 대처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을 포괄하였으며, 각 차원의 다양한 하위 요인(개인, 종교, 사회, 우주 및 자연)을 아울렀다. 이로써 SCQ는 인간이 개인과 개인을 초월한 영역에 있는 개체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영적인 것이라 여겨진 종교성을 배제하지 않는 동시에 비종교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개념을 보완하였다.

Charzynska(2015)는 영적 대처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이론과 Pargament(1999)의 종교적 대처 개념을 기반으로 초기 설문지를 구축하고 검증하였다. 그는 먼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성인 1,296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의 종류에는 자신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37.2%), 재정적인 어려움(22.5%), 중요했던 대인관계의 와해(21.3%), 사랑하는 사람의 투병(6.9%),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5.5%)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자료와 심리학, 철학, 종교학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초월성에 근거한 초기 문항이 구성되었다. 문항은 긍정적 영적 대처 차원에 속하는 4요인(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종교적)과 부정적 영적 대처 차원에 속하는 4요인(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종교적)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에 15문항씩 포함하여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언어학자, 심리학자를 비롯한 총 6명의 전문가들에게 각 문항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교정받는 과정을 통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분석에서 제거되어 각 요인에 10문항씩 포함된 총 80문항을 선정하였고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축소된 척도는 기존과 동일한 8요인 3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문항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환경적 대처를 이루는 문항의 상관계수가 낮아 최종 척도는 부정적 환경적 대처

요인을 제거한 7요인 32문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7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각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차원에는 삶의 목표와 의미 추구 경향이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적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긍정적 개인적 대처(positive personal coping), 타인과의 가치 있는 관계를 위한 사랑, 공감, 동정 등의 가치 지향성을 측정하는 긍정적 사회적 대처(positive social coping), 자연에 대한 친근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자연이 가진 소중함과 위대함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긍정적 환경적 대처(positive environmental coping),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뢰감과 사랑을 측정하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positive religious coping)가 포함된다. 부정적 차원에는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부정하고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에 초점 맞추는 것을 측정하는 부정적 개인적 대처(negative personal coping), 타인을 신뢰하지 않고 시기심이나 적대감을 가지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것을 측정하는 부정적 사회적 대처(negative social coping),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해 의구심과 불만을 품고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 측정하는 부정적 종교적 대처(negative religious coping)가 있다. 7요인 32문항으로 최종 확정된 영적 대처 척도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성인과 청소년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개발된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외래병동에서 집단 치료를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 및 준거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기존 척도와 다른 SCQ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스트

레스 대처자원으로써 영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개인의 영적 대처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임상과 비임상 집단 모두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다양한 대상에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CQ는 정신적 외상 위협에 자주 노출되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Ibrahim 등(2020)의 연구에서 긍정적 영적 대처 방식을 사용할수록 외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데 활용된 바 있다. 또한 Khoramimanesh와 Mansouri(2019)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 증상과 외상 이력 간의 관계를 영적 대처와 인지적 감정 조절 전략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셋째, 국교가 가톨릭인 폴란드에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요인 및 문항을 제작 및 선별하였기에 무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교성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비교적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CQ는 개발 이후 최근까지 중국, 이란, 네덜란드, 브라질, 브루나이 등 다양한 국가 및 문화권에서 활발히 타당화 및 활용되고 있다(Feng et al., 2020; Ibrahim et al., 2020; Khoramimanesh & Mansouri., 2019; Lilian, 2019). 국내에서는 이해지와 강영신(2017)의 연구에서 타당화 과정 없이 번안만 진행하여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영적 대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가 전무한 실정인 점, SCQ가 기존 영성 관련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한국인의 고유한 영적 대처 양상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스

트레스 경험에 대처하는 영적 대처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번안 작업을 실시한 연구자(이해지, 강영신, 2017)에게 허가를 받아 번안된 영적 대처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판 영적 대처 척도의 요인 구조와 하위 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판 영적 대처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판 영적 대처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증분 타당도는 어떠한가?

## 방 법

### 연구참가자

참가자는 리서치 업체와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 참여자 모집 풀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표본 1의 경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 활용된 표본 2의 경우 광역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부터 29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연구 안내문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본 1의 응답자는 리서치 업체의 정책에 따라 소정의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받았으며 응답한 532명 중 참가 대상이 아닌 경우, 중도 포기, 불성실한 응답, 결측치 등으로 간주된 223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09명의 최종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 2의 참여자는 수강하는 과목의 과제

점수를 부여받았으며 응답한 368명 중 참여 대상이 아니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된 62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306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본 1과

표 1. 표본 1, 2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표본 1 (N=309)		표본 2 (N=306)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5	50.2	121	39.5
	여	154	49.8	185	60.5
연령	19~29세	76	24.6	306	100.0
	30~39세	76	24.6	-	-
	40~49세	78	25.2	-	-
	50~64세	79	25.6	-	-
종교	무교	197	63.8	225	73.5
	기독교	65	21.0	53	17.3
	천주교	25	8.1	10	3.3
	불교	22	7.1	17	5.6
	기타	-	-	1	.3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	0.3	-	-
	고등학교 졸업	43	14.0	-	-
	대학 재학(전문대 포함)	29	9.4	303	99.0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205	66.3	-	-
	대학원 이상(재학 포함)	31	10.0	3	1.0
직업	일반사무/관리직	112	36.2	-	-
	영업/판매직	21	6.8	-	-
	생산직	9	2.9	-	-
	기능/직업직	10	3.2	-	-
	자유/전문직	32	10.4	-	-
	자영업	20	6.5	-	-
	대학(원)생	26	8.4	306	100.0
	주부	37	12.0	-	-
	무직	31	10.0	-	-
	기타	11	3.6	-	-



표본 2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측정 도구 및 변인 선정

영적 대처 척도의 수렴, 변별 및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검증된 5개 변인(영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심리적 안녕감, 우울, 불안)을 선정하였다. 먼저 영적 안녕감의 경우 영적 안녕감과 영적·종교적 대처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던 국외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암 투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 중 긍정적 영적 또는 종교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이들은 주로 높은 영적 안녕감을 보였으며 신체적, 정서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Clark & Hunter, 2019; Morgan et al., 2006). 또한 전염병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영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이들은 낮은 영적 안녕감을 보였으며 유병자의 경우 높은 사망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ababa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영적 대처와 영적 안녕이 정적 상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중 적극적 대처 차원과의 상관을 확인하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다. 적극적 대처 차원은 문제 중심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을 포함한다. 대처 방식과 영성의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Krok(2008)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그 하위 유형에 따라 영적 대처와의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task-oriented coping)와 사회적 전환 대처(social diversion coping)는 영성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 선행 연구들은 영성 수준이 높은 이들일수록 대처 과정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모색하거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재조직화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다(Bowie et al., 2004; Graham et al., 2001; Krok, 2008). 한편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 대처를 포함하는 소극적 대처 차원의 경우 통계 분석 과정에는 포함하였으나 타당도 검증 과정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소극적 대처와 유사한 회피지향적 대처(avoidance-oriented coping)가 영성의 일부 하위 요인들과만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거나 때로는 부적의 상관을 가지는 등 적극적 대처에 비해 불안정한 관계성을 보였기 때문이다(Krok, 2008, 2015). 세 번째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수렴 타당도와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들은 종교적·영적 대처 방식이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Williams 등(1991)은 종교적 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 불안을 통해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영적 대처가 우울 및 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과거부터 여러 연구에 의해 검증되었다. 종교적 및 영적 대처와 관련한 최신 이론과 연구에 대해 개괄한 Gall과 Guirguis-Younger(2013)는 종교적 및 영적 대처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Lee(2007)의 연구는 종교·영적 대처 수준이 높을 때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Boscaglia 등(2005)은 영적 대처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부정적 영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영적 대처 척도를 포함하여 각 변인을 측정을 위해 선정된 척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영적 대처 척도(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

국내에서 유일하게 활용된 적 있는 영적 대처 척도인 총 21문항 영적 대처 척도(Charzynska, 2015)의 국내 번안판을 사용하였다(이혜지, 강영신, 2017). 해당 연구에서는 영적 대처 척도의 번안만 이루어지고 타당화 과정은 수행되지 않아 국내 번안자에게 척도 타당화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사용 허가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번안자에게 번안 과정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다. 영적 대처에 관한 경험적 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해 추출한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한 영적 대처 척도(Charzynska, 2015)를 원 저자에게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자 2인(영어권 국가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 1인 및 학사 학위 취득자 1인), 영어권 국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비전공자 1인, 총 3인이 영문판 영적 대처 척도를 번안·역번안 하는 과정을 거쳐 번안된 영적 대처를 완성하였다(이혜지, 강영신, 2017).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척도의 최종 점검을 위해 심리학 석사 과정 대학원생 3인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였다. 3인은 설문에 응답한 후 응답 과정에서 어색하거나 중의적으로 느껴졌던 문항을 검토하였다. 일부 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

민감을 느꼈다.)에 대한 수정을 고려했으나 윈어(예:compassionate)의 의미를 유지하려 노력한 결과, 번안된 척도에서 수정 없이 척도를 최종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3개 요인(긍정적 개인적 대처, 긍정적 종교적 대처,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은 긍정적 영적 대처 요인에 해당하며 2개 요인(부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사회적 대처)은 부정적 영적 대처 요인에 해당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영적 대처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여 계산한다. 영적 대처 척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적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 범위는 21점에서 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적 대처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arzynska (201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긍정적 영적 대처 차원이 .92, 부정적 영적 대처 차원이 82이었으며, 이혜지와 강영신(2017)의 연구에서는 .89, 본 연구에서는 .82으로 확인되었다.

#### **영적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적 안녕감 척도인 영적안녕 척도(Paloutzian & Ellison, 1982)의 국내 타당화판을 사용하였다(정성덕 등, 2001). 영적안녕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영적안녕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80명의 전화상담 교육자에게 1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시행했으며 기독교인 131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

적 안녕감 요인 10개 문항(예: 나는 신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과 실존적 안녕감 요인 10개 문항(예: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으로 구성되어 총 2개 요인을 2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그런 편이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하여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정성덕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종교적 안녕감이 .87, 실존적 안녕감이 .87이었고, Paloutzian과 Ellison(1982)의 연구에서는 .87,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대처 척도로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를 박주영(1995)이 다시 각 하위 요인별로 6개 문항씩 발췌하여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적극적 대처 차원에 해당하는 문제중심 대처(예: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예: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소극적 대처 차원에 해당하는 정서적 대처(예: 그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와 소망적 사고 대처(예: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로 구성된다. 총 4개 요인, 24 문항이며 모두 4점 Likert 척도(0=사용하지 않는다, 1=약간 사용한다, 2=어느 정도 사용한다, 3=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주영(199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Riff(1989)가 개발하고 김명소 등(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6요인(자아 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으로 각 요인당 7~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김명소 등(2001)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확인되었다.

**CES-D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우울 척도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한국에서 번안된 여러 우울 척도를 통합하여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로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질문에 해당하는 일을 얼마만큼의 빈도로 경험했는지를 질문하며 4점 Likert 척도(0=극히 드물다, 1=가끔 있었다, 2=종종 있었다, 3=대부분 그랬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때 우울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 하여 계산한다. 원척

도 개발자인 Radloff(1977)는 16점을 경증 우울, 21점을 중등도 우울, 25점 이상을 중증 우울을 판별하는 절단점으로 제시하였다. 전경구와 이민규(199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확인되었다.

#### 특성 불안 검사 Y형(The Trait Anxiety Inventory: TAI)

Spielberger(1983)가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등(1996)이 타당화한 것 중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성 불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불안 성향의 개인차를 말한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0=전혀 아니다, 1=약간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 때 불안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문항은 역채점한다. 한덕웅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0,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과정으로 나뉜다. 첫째, K-SCQ의 하위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SPSS Program 24.0을 이용하여 표본 1(N=309)의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요인의 추출방법은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으로는 직각 회전인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요인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론적으로는 사각 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영적 대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구성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각 회전을 사용했을 때 문항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리맥스 방식을 선택하였다. 둘째, 도출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경쟁모형과 비교하기 위해 AMOS Program 24.0을 이용하여 새로운 대상인 표본 2(N=306)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K-SCQ의 수렴, 변별 및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준거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하여 Pearson's  $r$ 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적 상관이 예상되는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스트레스 대처 방식(The ways of coping checklist)의 적극적 대처 차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과의 상관분석을 거쳐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역상관이 예상되는 우울(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특성 불안(The Trait Anxiety Inventory: TAI)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SCQ와 영적 안녕감 척도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영적 대처가 심리 건강에 미치는 추가적인 설명량을 검증하였다.

## 결 과

### K-SCQ의 탐색적 요인분석

SCQ 예비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특정 요인으로 얼마나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aiser-Mater-Olkin Measure(KMO)을 산출한 결과, 그 값이 .86으로

나타나 기준치인 .6 이상으로(송지준, 2015)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Bartlett 구형성 검정(sphericity)도 유의한 수준( $\chi^2(496)=6708.33, p<.000$ )에 해당하여 요인분석이 가능할 만큼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K-SCQ의 하위 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축요인분석과 배리맥스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요인의 수는 6개였다. 그러나 요인당 문항수, 요인부하량 그리고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값이 완만해지는 지점과 총 변량을 고려했을 때 5에서 7요인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되었다(Baba & Nakamoto, 1976). 요인 부하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들이 .5 이상으로 적정 범위 안에 있었으나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4 이상으로 중복되는 문항이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공통성이 .4

미만인 문항은 제거를 고려하고, .4 이상인 문항은 유의미한 요인으로 간주하나 연구자의 결정에 따라 보수적인 기준(예: .5 미만일 시 제거)을 고려할 수 있다(송지준, 2015).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 요인에서 .4 이상으로 중복되는 3개 문항과 공통성이 .5 이하인 6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문항 삭제 이후 원 척도 요인에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탈락한 요인에 속한 나머지 문항 2개를 모두 제거하였다. 이때 긍정적 환경적 대처 첫 번째 문항(‘나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돌보았다.’)은 공통성 미달 기준과 요인 부하량 중복 기준 모두에 해당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원척도에서 ‘긍정적 사회적 대처’를 측정하는 문항과 ‘부정적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는 문항이 대부분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손실된 문항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번안된 영적 대처 척도의 손실 문항 (N=309)

번호	손실 문항	
19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납득시켰다.	NP
11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다.	PS
17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민감을 느꼈다.	PS
22	나는 타인들에게 공평하려고 노력했다.	PS
26	나는 누군가가 상처받았을 때 곧바로 반응했다.	PS
29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태도를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PS
32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했다.	PS
3	나는 내 삶에 벌어진 것에 대해 신적 존재를 탓했다.	NR
15	나는 신적 존재가 나를 저버렸다는 것에 화가 났다.	NR
18	나는 신적 존재가 내 죄에 대해 나를 처벌한다고 생각했다.	NR
1	나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돌보았다.	PE

주. 원척도의 약자: Positive Personal=PP, Positive Social=PS, Positive Environmental=PE, Positive Religious=PR, Negative Personal=NP, Negative Social=NS, Negative Religious=NR

최종적으로 남은 21문항에 대해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KMO 값은 .86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79)=383.88, p<.000$ . 고유값이 1.0 이상이고 스크리 도표에서 완만해지는 지점, 문항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요인 수를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5요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5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75.88%였으며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의 크기 범위는 .66에서 .9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의 설명량은 24.34%로 원칙도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판에서도 원칙도의 요인 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6.45%를 설명하였으며 원칙도의 ‘긍정적 환경적 대처’에 속해있던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을 포함한다. 유지된 4개 문항에 표현된 환경은 자연(nature)을 의미하였고 제거된 1개 문항에 표현된 환경은 보다 포괄적인 환경(environment)을 의미하였다. 이에 두 번째 요인이 포함하는 문항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3.02%를 설명하며 원칙도의 ‘부정적 사회적 대처’에 해당하는 전체 문항을 포함한다. 네 번째 요인은 11.47%의 설명량을 가지며 원칙도의 ‘긍정적 개인적 대처’ 전체 문항을 포함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10.58%의 설명량을 가지며 원칙도에서 ‘부정적 개인적 대처’에 속하는 3개 문항을 포함한다. 5개 요인 모두 원칙도의 각 요인이 포함하는 문항을 전체 또는 대부분 포함하여 원칙도의 요인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였다. 원칙도에서는 총 32문항, 7요인의

구성을 보였지만 K-SCQ는 총 21문항, 5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1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양호하였으며 긍정적 대처 차원은 .90, 부정적 대처 차원은 .83이었다. 각 하위 요인들의 경우 긍정적 개인적 대처 .75, 긍정적 종교적 대처 .96,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 .94, 부정적 개인적 대처 .81, 부정적 사회적 대처 .83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 K-SCQ의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K-SCQ의 5요인 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Program 24.0을 이용하여 표본 2(N=306)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고 모형 평가 시 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합도 지수인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RMR),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K-SCQ의 적합도 지수는  $\chi^2(179)=439.84, TLI=.93, CFI=.94, RESEA=.06, SRMR=.04$ 로 나타났다(표 4). 기존의 영성 척도와 다른 K-SCQ의 주요한 특징은 영적 대처를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경쟁모형으로는 영적 대처의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을 구분하지 않은 모형인 4요인 모형을 상정하였다. ‘긍정적 개인적 대처’와 ‘부정적 개인적 대처’를 ‘개인적 대처’로 묶은 4요인 모형은 연구모형인 5요인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LI=.87, CFI=.88, RESEA=.08, SRMR=.08).

표 3.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른 한국판 SCQ의 요인 부하량(N=309)

번호	문항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30	나는 신적 존재가 나를 둘러싼다는 생각에 집중했다.	.92				
9	나는 일상생활에서 신적 존재의 존재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했다.	.91				
25	나는 신적 존재와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다.	.91				
13	나는 나에게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신적 존재에게 의지했다.	.91				
5	나는 신적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90				
4	나는 기도를 함으로써 위안을 찾으려 노력했다.	.85				
23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유함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91			
20	나는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89			
28	나는 자연에서 조화로움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88			
7	나는 자연과 가까이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88			
14	나는 타인들이 그들이 위신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시키려 노력했다.			.89		
12	나는 타인들이 이기주의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시키려 노력했다.			.88		
8	다른 사람들은 악의가 있다고 내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72		
16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했다.			.66		
2	나는 내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72	
6	나는 벌어진 일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려 애썼다.				.72	
27	나는 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72	
31	나는 나의 내적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71	
24	나는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83
21	나는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82
10	나는 그만 사는 것을 상상했다.					.78
Cronbach's $\alpha$		.86	.96	.83	.75	.81

주. 원척도의 약자: Positive Personal=PP, Positive Social=PS, Positive Environmental=PE, Positive Religious=PR, Negative Personal=NP, Negative Social=NS, Negative Religious=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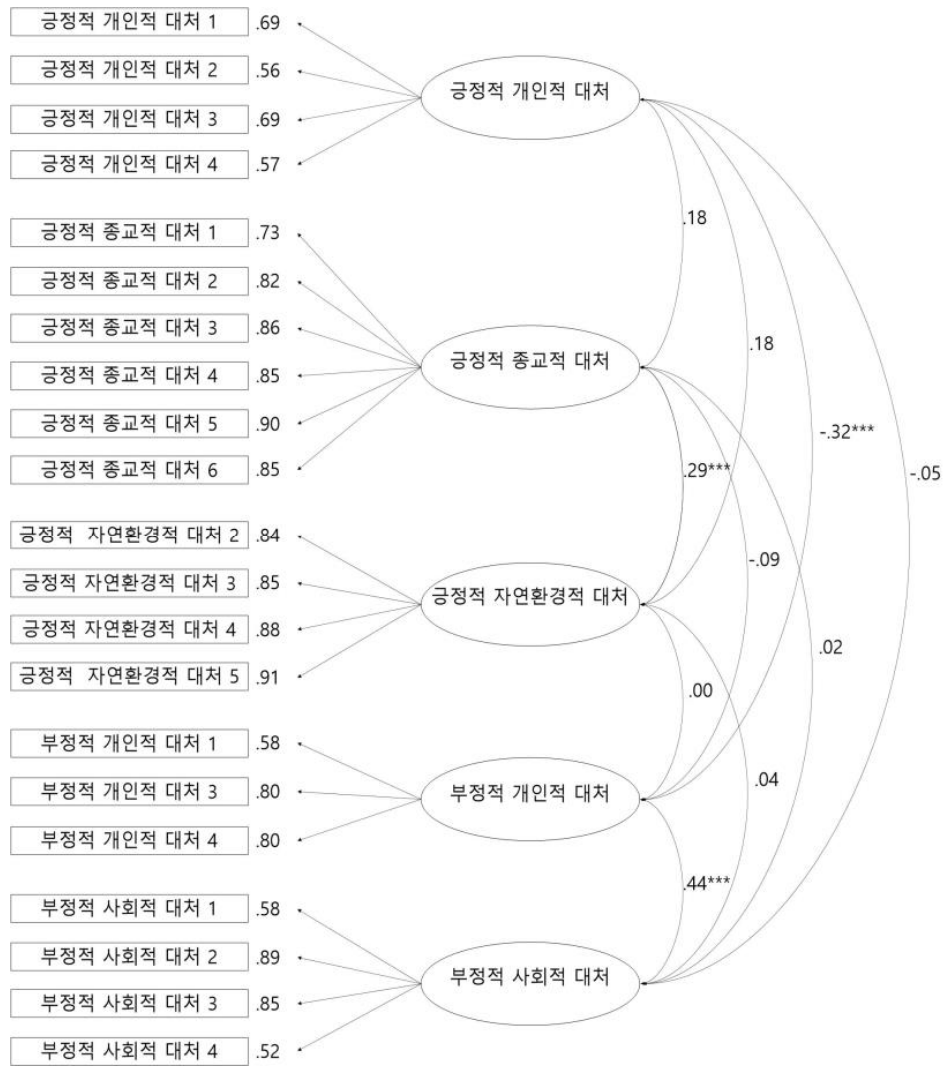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K-SCQ의 요인 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 계수

주. \*\*\*  $p < .001$

표 4. K-SCQ의 연구모형(5요인) 모델 적합도

( $N=306$ )

Model	$\chi^2$	$df$	TLI	CFI	RMSEA	SRMR	$p$
연구모형 (5요인)	439.84	179	.93	.94	.06	.04	.000
경쟁모형 (4요인)	602.315	183	.87	.88	.08	.08	.000



## 신뢰도

K-SCQ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2으로 양호하였으며 긍정적 대처 차원은 .85, 부정적 대처 차원은 .81이다. 각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는 긍정적 개인적 대처 .72, 긍정적 종교적 대처 .93,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 .93, 부정적 개인적 대처 .77, 부정적 사회적 대처 .80으로 나타났다.

## 수렴 및 변별타당도

K-SCQ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K-SCQ와 하위 척도, 영적 안녕감 척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우울 척도, 특성 불안 척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정규성은 첨도와 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왜도는 |3| 이하, 첨도는 |10| 이하일 때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여긴다(Kline, 2005). 한편 척도 타당화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1| 내외까지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기준도 존재한다(Muthen & Kaplan, 1985; Sorgente & Lanz, 201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척도들과 그 하위 요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대부분 |1| 미만, 일부에서 |1| 내외이므로 정규성이 검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5). 다음으로 K-SCQ와 그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하위 요인은 전체 척도와 유의한 수준에서 중간 또는 그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개인적 대처( $r=.45, p<.001$ ), 긍정적 종교적 대처( $r=.74, p<.001$ ), 긍정적 자연환경

적 대처( $r=.57, p<.001$ ), 부정적 개인적 대처( $r=.48, p<.001$ ), 부정적 사회적 대처( $r=.39, p<.001$ )이다.

수렴타당도를 확인을 위해 먼저 영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K-SCQ 전체 점수는 영적 안녕감 전체와 중상 수준의 정적 상관( $r=.59, p<.01$ )을 보였으며, 그 중 긍정적 종교적 대처와 종교적 안녕감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r=.80, p<.001$ ). 이는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종교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느끼는 신뢰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와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적극적 대처 방식 차원과는 중간 수준의 정적인 상관( $r=.42, p<.001$ )을, 소극적 대처 방식 차원과는 낮은 수준의 상관( $r=.13, p<.05$ )을 가져 척도 전체 점수와는 중하 수준의 상관( $r=.31, p<.001$ )을 보였다. 이는 영성 자원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 방식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Krok, 200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K-SCQ의 변별 타당도 확인 및 임상적 유용성 검증 차원에서 우울과 특성 불안과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된 우울( $r=-.41, p<.001$ )과 특성 불안( $r=-.47, p<.001$ )은 중간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자연 환경적 대처는 우울, 특성 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 증분타당도

기존의 영성 관련 척도에 비해 K-SCQ가 심

표 5. K-SCQ와 관련 척도들의 상관 및 기초통계(N=306)

	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3	3-1	3-2	3-3	3-4	3-5	3-6	4	5	
<b>1. 영적 대처</b>	1																				
1-1. 긍정적 영적 대처	.87***	1																			
1-2. 부정적 영적 대처	-.08	-.09	1																		
1-3. 긍정적 개인적 대처	.45***	.50***	-.16**	1																	
1-4. 긍정적 종교적 대처	.74***	.75***	-.03	.16**	1																
1-5. 긍정적 자인환경적 대처	.57***	.76***	-.03	.14*	.28***	1															
1-6. 부정적 개인적 대처	.48***	.12*	-.57***	.25***	.08	.00	1														
1-7. 부정적 사회적 대처	.39***	-.01	.46***	.05	.01	-.06	.41***	1													
<b>2. 영적 안녕감</b>	.59***	.50***	-.08	.19**	.65***	.18**	.26***	.16**	1												
2-1. 실존적 안녕감	.11	.03	-.09	.06	-.00	.02	.19***	.12*	.61***	1											
2-2. 종교적 안녕감	.67***	.62***	-.04	.19**	.80***	.22***	.18**	.11*	.78***	.00	1										
<b>3. 스트레스 대처 방식</b>	.31***	.38***	-.17**	.37***	.26***	.20***	.09	-.11*	.22***	.08	.22***	1									
3-1. 격극적 대처 방식	.41***	.42***	-.25***	.44***	.22***	.27***	.27***	.01	.24***	.06	.26***	.78***	1								
3-2. 소극적 대처 방식	.02	.13*	.00	.09	.17**	.01	-.16**	-.19**	.08	.06	.06	.71***	.12*	1							
3-3. 문제중심 대처 방식	.32***	.34***	.25***	.46***	.13*	.21***	.25***	-.01	.13*	.00	.17**	.53***	.74***	.00	1						
3-4.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방식	.32***	.32***	-.14**	.25***	.21***	.22***	.17**	.03	.24***	.09	.23***	.68***	.80***	.17*	.21***	1					
3-5. 정서중심 대처 방식	-.01	.05	-.01	.03	.09	-.02	-.10	-.15**	.05	.08	.00	.47***	-.01	.77***	-.05	.02	1				
3-6. 소망적 대처 방식	.05	.15**	.01	.10	.17**	.04	-.15**	-.16**	.07	.01	.08	.66***	.19**	.83***	.05	.24***	.30***	1			
<b>4. 우울</b>	-.41***	-.20***	.24***	-.23***	-.14*	-.09	-.57***	-.32***	-.32***	-.22***	-.23***	.04	-.15**	.24***	-.15**	-.09	.10	.28***	1		
<b>5. 특성 불안</b>	-.47***	-.25***	.17**	-.29***	-.18**	-.09	-.54***	-.39***	-.38***	-.27***	-.27***	.04	-.15**	.25***	-.19**	-.05	.05	.33***	.80***	1	
평균	3.25	2.96	3.01	3.90	1.85	3.11	1.86	4.17	3.22	3.75	2.69	2.56	2.70	2.43	2.74	2.65	2.02	2.84	.67	1.08	
표준편차	.48	.59	.40	.59	.96	1.01	.81	.75	.70	.87	1.11	.33	.47	.42	.56	.64	.48	.55	.44	.44	
예도	.44	.12	.08	.40	1.15	-.40	-1.03	-1.06	.60	.23	.73	.37	.13	.08	-.16	-.32	.12	-.28	1.03	.81	
칠도	.16	.29	2.45	.29	.55	-.37	.38	1.22	.71	-.50	.24	.10	.10	-.31	-.07	-.07	-.43	-.28	1.19	.63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리적 안녕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변화량을 표현하는  $\Delta R^2$  값은 .02 이하인 경우 작은 효과 크기로 간주되며 .13 이하인 경우 중간 효과 크기로, .23 이상인 경우 큰 효과 크기로 간주된다(Cohen et al., 2003). 먼저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영적 안녕감 척도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의 17.5%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K-SCQ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사회적 대처, 긍정적 종교적 대처, 긍정

적 환경적 대처를 추가한 2단계에서는 K-SCQ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46.8%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새로 추가된 K-SCQ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29.3%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Delta R^2=.293, p<.000$ .

두 번째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영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 요인인 종교적 안녕감과 실존적 안녕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1단계에서는 영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18.0%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K-SCQ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사회적 대

표 6.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306)

단계	독립변인	B	SD	$\beta$	t(p)	R <sup>2</sup>	$\Delta R^2$
1단계	SWBS	.276	.034	.419	8.041***	.175	.175
	SWBS	.219	.037	.332	5.838***		
2단계	긍정적 개인적 대처	.202	.035	.259	5.846***	.468	.293
	부정적 개인적 대처	.222	.026	.411	8.437***		
	부정적 사회적 대처	.004	.029	.006	.134		
	긍정적 종교적 대처	-.074	.027	-.152	-2.711**		
	긍정적 환경적 대처	.055	.020	.119	2.687**		
1단계	종교적 안녕감	.119	.022	.285	5.479***	.180	.180
	실존적 안녕감	.168	.028	.315	6.050***		
2단계	종교적 안녕감	.102	.030	.245	3.362**	.468	.228
	실존적 안녕감	.113	.023	.212	4.912***		
	긍정적 개인적 대처	.203	.035	.259	5.844***		
	부정적 개인적 대처	.222	.026	.410	8.422***		
	부정적 사회적 대처	.004	.029	.007	.152		
	긍정적 종교적 대처	-.068	.035	-.139	-1.916		
	긍정적 환경적 대처	.055	.021	.119	2.677**		

주. \*\*  $p<.01$ , \*\*\*  $p<.001$ , SWBS=Spiritual Well-Being Scale, K-SCQ=Korean version of 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처, 긍정적 종교적 대처, 긍정적 환경적 대처를 예측 변인으로 추가한 2단계의 회귀모형은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46.8%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새로 추가된 K-SCQ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 변량의 22.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변화량은 유의미하였다,  $\Delta R^2=.228, p<.000$ .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영성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Charzynska(2015)가 개발하고 이해지와 강영신(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영적 대처 척도(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9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실시한 결과 5요인으로 구성된 21문항의 K-SCQ가 제안되었다. 이는 7요인 32문항으로 이루어진 원척도에서 주로 긍정적 사회적 대처와 부정적 종교적 대처에 해당하는 문항이 공통성 및 요인 부하량 적합도 기준에 맞지 않아 제거된 결과이다. 이후 새로운 표본 306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적합도 지수가 모두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K-SCQ의 수렴, 변별 및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K-SCQ 타당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K-SCQ는 한국인의 영적 대처를 구성하는 요인을 긍정적 개인적 대처, 긍정적 종교적 대처,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 부정적

개인적 대처, 부정적 사회적 대처로 설명하였다. 5요인 모두 원척도에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전체 또는 대부분 포함하여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 외 요인은 원척도의 요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척도가 기존의 영성 척도들보다 종교의 유무 또는 특정 종교의 성격, 국가 혹은 문화권의 차이에 영향을 덜 받도록 타당화 되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원척도의 요인 구조와 구분되는 특성은 개인적 영적 대처 요인만이 긍정 차원과 부정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척도는 긍정적 환경적 대처만 단일 차원을 가지고 이외 요인은 모두 긍정과 부정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과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해석 가능한 K-SCQ의 특성을 각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영적 대처 차원에 속하는 ‘긍정적 개인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행동하는지,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된 특성을 반영한다. 한편 ‘부정적 개인적 대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반영한다. 두 요인은 원척도와 본 연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영적 대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개인적 대처와 부정적 개인적 대처 수준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동일한 개인일지라도 긍정적 개인적 대처의 사용 수준과 별개로 부정적 개인적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교적 영적 대처 차원에서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유지되고 ‘부정적 종교적 대

처’는 탈락하였다.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 원인을 신 또는 절대자에게 돌리는 사고 및 정서 양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종교적 대처’는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했을 때와 종교를 가진 이들만 추출하여 실시한 추가 분석 모두에서 중복 적재 등의 부적합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본 연구와 원칙도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종교성 차이, 한국의 종교 단체의 성장 과정과 기복(祈福) 신앙적 요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1의 참가자는 무교가 60% 이상이며 표본 2의 경우는 탈종교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20대(김상인, 2017; 한국갤럽, 2021)인 반면 원칙도는 국민의 90%가량이 가톨릭인 폴란드(외교부, n.d.)에서 개발되었다. 물론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종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유럽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으며(정병권, 2004) 원칙도는 무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성을 가진 이들의 영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영성 척도에 비해 종교성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Charzynska, 2015). 그럼에도 부정적 종교적 대처 차원에서 강조된 신의 권위적 역할(예: 죄에 대한 처벌)은 유·불·도교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 및 무속 신앙을 발전시켜온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는 업(業)을 인과응보와 윤회의 원리에 기반해 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으로 설명하며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의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권도균, 2008; 김순재, 2017)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이 신적인 존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신념이 강하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종교 단체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사회가 피폐해진 당시 교회들은 다양한 구호 사업과 자선 사업을 실시했다(박보경, 2010). 이는 당시 한국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 종교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다룬 진덕규(1984)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겪은 한국은 전통사회의 연대적 특성이 감소함에 따라 소외의식이 대두되었다. 가정, 지역, 동료 등에 대한 귀속감을 상실한 이들은 자신이 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야 했고, 많은 이들은 그 대상으로 종교를 택했다. 당시 한국에서 종교는 소외계층에게는 비록 현실에서는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더라도 종교적 신앙을 가진다면 내세에서는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였고 새로운 중산층에게는 부의 유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종교, 즉 신은 자신에게 처벌은 내리는 존재가 아닌 복, 질병의 치유 등 긍정적인 것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을 수 있다.

셋째,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는 원칙도 ‘긍정적 환경적 대처’와 동일하게 개인이 자연을 친밀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식을 통해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도에서 탈락한 1개 문항은 ‘나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돌보았다.’ 였는데 이는 다른 문항에서 환경이 ‘자연’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사회적인 환경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 낮은 적합도를 보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처에서는 원칙도의 ‘긍정적 사회적 대처’가 제거되고 ‘부정적 사회적 대처’가 유지되었다. 탈락한 ‘긍정적 사

회적 대처'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 및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 '공평', '연민' 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행동하고 사고하는지를 의미한다. '긍정적 사회적 대처'가 탈락한 이유는 문항에 기술된 대처 전략들이 한국인이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양상과 불일치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앞서 영성 개념에서 언급했듯 한국 종교 및 신앙의 기틀이 되는 유·불·도교에서도 타인과의 연결감,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에 대한 배품, 봉사심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인경, 2006). 그러나 원칙도의 '긍정적 사회적 대처'에 문항에 포함된 일부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문항은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연민감을 느꼈다.'이다. 이 문항에 포함된 '연민'은 원어인 'compassion'의 의미인 '동정심'보다는 'pity'처럼 '불쌍히 여김'에 해당하는 의미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 한국에서 '연민'은 사전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국립국어원, n.d.). 공감을 비롯한 유사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다룬 연구(최형진 외, 2020)에 따르면 연민은 자비의 감정과 유사한 것으로, 공감이나 동정과는 달리 발생하는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타자와 자신 사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거리감을 두며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러한 용어 해석의 가능성으로 연구 참여자가 단어의 의미가 가진 긍정 혹은 부정성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겪었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나는 누군가 상처 받았을 때 곧바로 반응했다.'와 같은 문항 역시 해당 행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모호했을 수 있다. 타인 의식적인 집단주의 및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국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체면을 중시한다(최상진, 유승엽, 1992). 사람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인 이상화된 또는 과대적 자기와 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객체적 자기 인식 사이에서 불일치를 느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체면이 상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의 '체면 문화'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최상진, 김기범, 2000).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식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개인적 어려움을 노출하는 것은 체면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Kim et al., 2006).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타인의 상처에 곧바로 반응한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행동의 적절성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긍정적 사회적 대처 문항에 포함된 일부 용어 및 표현은 한국인이 이해했을 때 다소 중의적이거나 적절성이 명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K-SCQ와 관련 척도들의 상관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K-SCQ의 특징과 이와 관련된 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자연환경적 대처'는 우울, 특성 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Berman et al., 2012; Lawton et al., 2017)과는 불일치한 결과이다. 원인으로 표본 2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본 2의 참여자는 모두 만 19세~29세 사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만 25세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행동에 대한 국가, 성별, 연령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

구(윤성욱, 양연조, 2015)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령 간 차이가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친환경 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만 25세 미만과 40대 이상은 매우 높은 차이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연령대에 따른 특성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K-SCQ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 중 '적극적 대처 방식'과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소극적 대처 방식'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영성이 적극적 대처 방식에 해당하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높은 상관이 있는 반면 소극적 대처와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거나 때로는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Krok, 2008)와 일치한다. 소극적 대처가 낮은 상관을 보인 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비교적 낮은 내적 일치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 .72, 적극적 대처 .76, 소극적 대처 .65이다. 해당 척도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소극적 대처는 적극적 대처에 비하여 종종 .70 이하의 낮은 내적 합치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e.g., 고진경 외, 2007; 신호정 외, 2012). 위 내용을 고려하여 해석을 종합해보자면, 긍정적 영적 대처를 사용하는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극적 대처는 비교적 낮은 내적 합치도를 가지기 때문에 향후 다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도구와의 상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본 연구의 첫째 의의는 한국인의 영적 대처를 종교성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및 타당화된 척도들은 연구 대상자가 특정 종교를 가진 이들에 국한되거나 종교성을 배제하여 개인의 종교성 및 신앙에 따라 활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K-SCQ의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 분포는 한국인의 종교 분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한국갤럽, 2021) 다양한 종교성과 신앙을 가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K-SCQ는 종교성을 비롯하여 동·서양의 영성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요소인 삶의 의미, 내적 자원, 연결성, 초월성 등(이경열 외, 2003)을 포함하는 개인적, 사회적, 자연환경적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이 어떤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차원적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의의는 국내 최초로 '영적 대처'를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영성 관련 척도들은 주로 영적 안녕감이나 신념을 측정하는, 즉 영적 자원의 소유나 경험을 측정하여 영성을 대처자원으로써 활용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영적 대처를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e.g., 이봉재, 2005)는 영적 안녕감 척도와 대처 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영적 대처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해야 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삶의 질 등의 변인 간 관계에서 영성 요인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 등(e.g., 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김유심, 2010; 김진이, 2016)은 영적 대처를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수 있다. 앞으로는 K-SCQ의 타당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영적 대처와 다양한 심리적 변인의

관계성 및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의의는 K-SCQ의 타당화를 통해 기존의 정서, 행동, 인지적 특성에 더해 내담자의 영적 대처 방식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개입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관계망 연결을 방해하는 부정적 영적 대처 양식에 대해 이해하고, 보호 요인으로 활용할 긍정적 대처자원 및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들은 한국인의 종교 인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무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적 대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종교성과 신앙은 영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 종교가 가진 독특한 문화, 신념 그리고 경험이 영적 대처 과정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에 적용한다면 본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K-SCQ는 원 척도가 폴란드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영적 대처 도구인 만큼 준거를 두고 참고할 만한 국내 척도가 부족하였다. 이에 주로 국외 연구 또는 국내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요인(예: 영성, 영적 안녕감, 대처)을 활용한 논문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국외 연구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영적 대처의 영향이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후속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영적 대처

척도가 개발 및 타당화 된다면 수렴 타당도를 추가로 검증해보는 것이 K-SCQ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영적 대처 중에서도 긍정적 사회적 대처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는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특성 비교가 가능했다면 탈락한 ‘긍정적 사회적 대처’요인이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높은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적합한 요인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연구자의 판단 및 필요에 따라 탈락된 ‘긍정적 사회적 대처’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해당 요인이 탈락한 이유가 스트레스 수준에 의한 것인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복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적 대처가 일상 수준부터 외상 수준에 이르는 스트레스 경험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임상 및 비임상 장면에서 영적 대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진경, 윤태영, 박재현 (2007).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의과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19(3), 225-233.
- 국립국어원 표준어국어대사전 (n.d.).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권도균 (2008). 불교 업(業)사상의 현대적 의미.



- 교정담론, 2(2), 23-41.
- 권석만 (1997). 불안장애의 정신병리 평가. *정신병리학*, 6(1), 37-5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보람, 김사라형선 (2019). 목회자 사모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3), 67-90.
- 김상인 (2017).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의 천주교. *사목정보*, 10(2), 44-49.
- 김순재 (2017). 업신의 용어 고찰. *어문연구*, 92, 155-184.
- 김재엽, 황호경, 최유일, 노정훈 (2021). 암 환자의 신체적 일상 활동과 우울의 관계에서 영적안녕감의 조절효과. *보건과 복지*, 23(2), 35-61.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 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형, 이숙정, 노재경, 윤정순, 이원희 (2006). 영성 증진 중재가 암환자의 영성, 사회적 지지 및 투병정신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8(2), 240-250.
- 김진이 (2016). 중년 여성의 일상생활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적 안녕과 대처기제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4, 41-75.
- 박보경 (2010).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26, 105-140.
- 박성현, 성승연 (2013). 한국판 인본주의적-현상적 영성 지향 척도(K-HPSOI)의 타당화 연구. *인문학논총*, 32, 181-209.
- 박주영 (1995). A·B 성격유형·자아정체감 스트레스 대처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상정, 양난미 (2014). 영성, 희망, 외상 후 성장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597-618.
- 서경현, 전경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77-1095.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과주: 21세기사*.
- 신효정, 최현주,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장유진, 이상민 (2012).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89-309.
- 외교부 (n.d.).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99](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99)
- 윤성욱, 양연조 (2015). 친환경 행동에 대한 국가, 성별, 연령 차이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8), 5089-5095.
- 윤태상, 신희천 (2018).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2), 189-210.
- 윤혜연 (2017). 한국어판 영성경험척도의 타당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영, 김근향 (2015).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타당화.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257-274.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 이봉재 (2005). 알코올 중독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종교적/영적대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2(2), 141-153.
- 이서정, 이희경 (2011). 영성과 대처 방식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해*, 32(1), 135-152.
- 이혜지, 강영신 (2017). 상실에 따른 애도 반응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재평가와 영적 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6), 623-643.
- 인 경 (2006). 불교에서 본 영성. *헬스앤미션*, 5, 30-35.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 정명숙 (2018). 국내 영성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385-409.
- 정병권 (2004). 폴란드 민족성과 의사 소통 방식. *국제지역연구*, 8(1), 135-167.
- 정성덕, 이종범, 박형배, 김진성, 배대석, 이광현, 사공정규, 송창진, 배진우 (2001). 한국판 영적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0(2), 230-242.
- 조선일보 (1998년 1월 24일). WHO 규정에 '영적 안녕' 신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1/24/1998012470049.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01/24/1998012470049.html)
- 진덕규 (1984). 종교.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6(3), 153-160.
- 차진경, 유채영 (2014).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상황, 스트레스 대처 방식, 수용성과 영적 건강 간의 관계.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5(1), 17-32.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최형진, 이상민, 노세리 (2020). 공감(Compassion) 개념에 대한 이해. *대한질적연구학회지*, 5(1), 40-53.
- 한국갤럽 (2021년 04월 17일).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1996).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Baba, Y., & Nakamoto, K. (1976).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from the matrix of partial correlations. *Biometrika*, 63(3), 627-634.
- Beck, R., & McDonald, A. (2004). Attachment to god: The attachment to god inventory, tests of working model correspondence, and an exploration of faith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 92-103.
- Berman, M. G., Kross, E., Krpan, K. M., Askren, M. K., Burson, A., Deldin, P. J., Kaplan, S., Sherdell, L., Gotlib, I. H., & Jonides, J. (2012). Interacting with nature improves cognition and affect for individuals with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0(3), 300-305.
- Boscaglia, N., Clarke, D. M., Jobling, T. W., & Quinn, M. A. (2005). The contribution of

- spirituality and spiritual coping to anxiety and depression in women with a recent diagnosis of gynecological cancer.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 Cancer*, 15, 755-761.
- Bowie, V., Sydnor, K.D., Granot, M., & Pargament, K.I. (2004). Spirituality and coping among survivors of prostate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2, 41-56.
- Charzynska, E. (2015). Multidimensional approach toward spiritual coping: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 *Journal of Religion & Health*, 54(5), 1629-1649.
- Clark, C. C., & Hunter, J. (2019). Spirituality,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oping in advanced heart failur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7(1), 56-73.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tton, S., Puchalski, C. M., Sherman, S. N., Mrus, J. M., Peterman, A. H., Feinberg, J., Pargament, K. I., Justice A. C., Leonard, A. C., & Tsevat, J. (2006).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patients with HIV/AID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1(5), 5-13.
- Daniel, T. (2012). Losing faith vs. gaining perspective: How trauma and loss can create a more spacious form of spiritual awareness. *Journal of Spirituality & Paranormal Studies*, 35(1), 18-22.
- Elkins, D. N., Hedstrom, L. J., Hughes, L. L., Leaf, J. A., & Saunders, C. (1988). Toward a humanistic-phenomenological spirituality.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8(4), 5-18.
- Feng, J., Li, Y., Sun, Y., Wang, L., Qi, W., Wang, K. T., & Xue, Y. (2020). The chinese spiritual coping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0, 458-474.
- Fetzer Institute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1999).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Kalamazoo, MI: Fetzer Institute.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A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olkman, S., & Lazarus, R. S. (1986). Stress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2), 107-113.
- Gall, T. L. (2006). Spirituality and coping with life stress among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7), 829-844.
- Gall, T. L., & Guirguis-Younger, M. (2013). Religious and spiritual coping: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K. I. Pargament, J. J. Exline, & J. W. Jones (Eds.) *APA handbook of psychology, religion, and spirituality (Vol. 1): Context, theory, and research* (pp. 349-36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ll, T. L., Basque, V., Damasceno-Scott, M., & Vardy, G. (2007). Spirituality and the current adjustment of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 101-117.

- Genia, V. (1997). The spiritual experience index: Revision and reformula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8(4), 344-361.
- Genia, V. (2001). Evaluation of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1(1), 25-33.
- Graham, S., Furr, S., Flowers, C., & Thomas-Burke, M. (2001).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coping with stress. *Counseling and Values*, 46, 2-13.
- Hall, T. W., & Edwards, K. J. (2002). The spiritual assessment inventory: A theistic model and measure for assessing spiritual develop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341-357.
- Hill, P. C., Pargament, K. I., Hood, R. W., McCullough, Jr., Swyers, J. P., Larson, D. B., & Zinnbauer, B. J. (2000). Conceptualizing religion and spirituality: Points of commonality, points of departur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0(1), 51-77.
- Ibrahim, M. A., Isa, K. Q., Haji-Idris, H., Nawi, S. H., Teo, Y. C., Rahman, H. A., & Abdul\_Mumin, K. H. (2020). Spiritual coping with stress among emergency and critical care nurses: A cross-sectional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6, 287-293.
- Jenkins, R. A., & Pargament, K. I. (1995). Religion and spirituality as resources for coping with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13(1), 51-74.
- Khoramimanesh, S., & Mansouri, A. (2019). The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piritual cop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story of trauma and symptoms of borderline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Behavior Science*, 17(1), 1-11.
-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happiness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595-1607.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ok, D. (2008). The role of spirituality in cop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dimensions and coping style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1(7), 643-653.
- Krok, D. (2015). Religiousness, spirituality, and coping with stress among late adolescents: A meaning-making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45, 196-203.
- Lawton, E., Brymer, E., Clough, P., & Denovan, A.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activity environment, nature relatedness, anxiety,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benefits of regular exercisers. *Frontiers in Psychology*, 8, 105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ee, B. J. (2007).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us/spiritual coping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astoral Psychology*, 55(6), 751-759.
- Lilian, J. B. (2019). The Relationship of spiritual coping with resilience and perceived stress: validation of the dutch spiritual coping

- questionnaire. *Spiritual Psychology and Counseling*, 4(2), 93-108.
- Miller, W. R., & Thoresen C. E. (2003). Spirituality, religion,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8(1), 24-35.
- Morgan, P. D., Gaston-Johansson, F., & Mock, V. (2006).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cop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african american breast cancer treatment: a pilot study. *ABNF Journal*, 17(2), 73-77.
- Muthen, B., & Kaplan, D. (1985). A comparison of some methodologies for the factor analysis of non normal Likert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2), 171-189.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Pargament, K. I. (1999).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Yes and no.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9(1), 3-16.
- Rababa, M., Hayajneh, A.A., & Bani-Iss, W. (2021). Association of death anxiety with spiritual well-being and religious coping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Religious Health*, 60(1), 50-6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ligman, M. E., & Weiss, J. M. (1980). Coping behavior: Learned helplessness, physiological change and learned inactiv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8(5), 459-512.
- Sheppes, G., & Meiran, N. (2007). Better late than never? On the dynamics of online regulation of sadness using distraction and cognitive reapprais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11), 1518-1532.
- Sheppes, G., Catran, E., & Meiran, N. (2009). Reappraisal (but not distraction) is going to make you sweat: Physiological evidence for self control effor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71(2), 91-96.
- Soola, A. H., Mozaffari, N., & Mirzaei, A. (2022). Spiritual coping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staff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iran: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1, 1657-1670.
- Sorgente, A., & Lanz, M. (2019). The multidimensional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scale for emerging adul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3(5), 466-478.
- Sormanti, M., & August. J. (1997). Parental bereavement: Spiritual connections with deceas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 460-469.
- Spielberger C. D.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anxiety inventory: STAI (form 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oddard, G., & Burns-Haney, J. (1990).

- Develop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spiritual assessment: One department's experience, *The Caregiver Journal*, 7(1), 63-86.
- Tao Y, Yu H, Liu S, Wang C, Yan M, Sun L, Chen Z, Zhang L (2022). Hope and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 coping in advanced cancer patients. *BMC Psychiatry*, 22, 345-353.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년 8월 15일).  
<https://www.who.int/about/governance/constitution>
- Williams, D. R., Larson, D. B., Buckler, R. E., Heckmann, R. C., & Pyle, C. M. (1991). Relig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 community sample. *Social Sciences Medicine*, 32, 1257-1262.

원 고 접 수 일 : 2024. 03.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4. 15

게 재 결 정 일 : 2024. 05. 10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u-a Lee      Ji-eun Shin      Hye-ji Lee      Young-Shin K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      Associate Professor      Lecturer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 (SCQ), developed by Charzynska (2015). The SCQ originally consisted of 7 factors and 32 item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with a sample of 309 Korean adults, 5 factors and 21 item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an acceptable model fit. The validity of the K-SCQ was confirmed through its correlations with related scales. It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and negatively with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nd the Trait Anxiety Inventory (TAI). Additionall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over SWBS, suggesting that the construct of the K-SCQ is distinct from that of the SWBS. Final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piritual coping, stress coping, scale validation, spiritual coping questionnaire